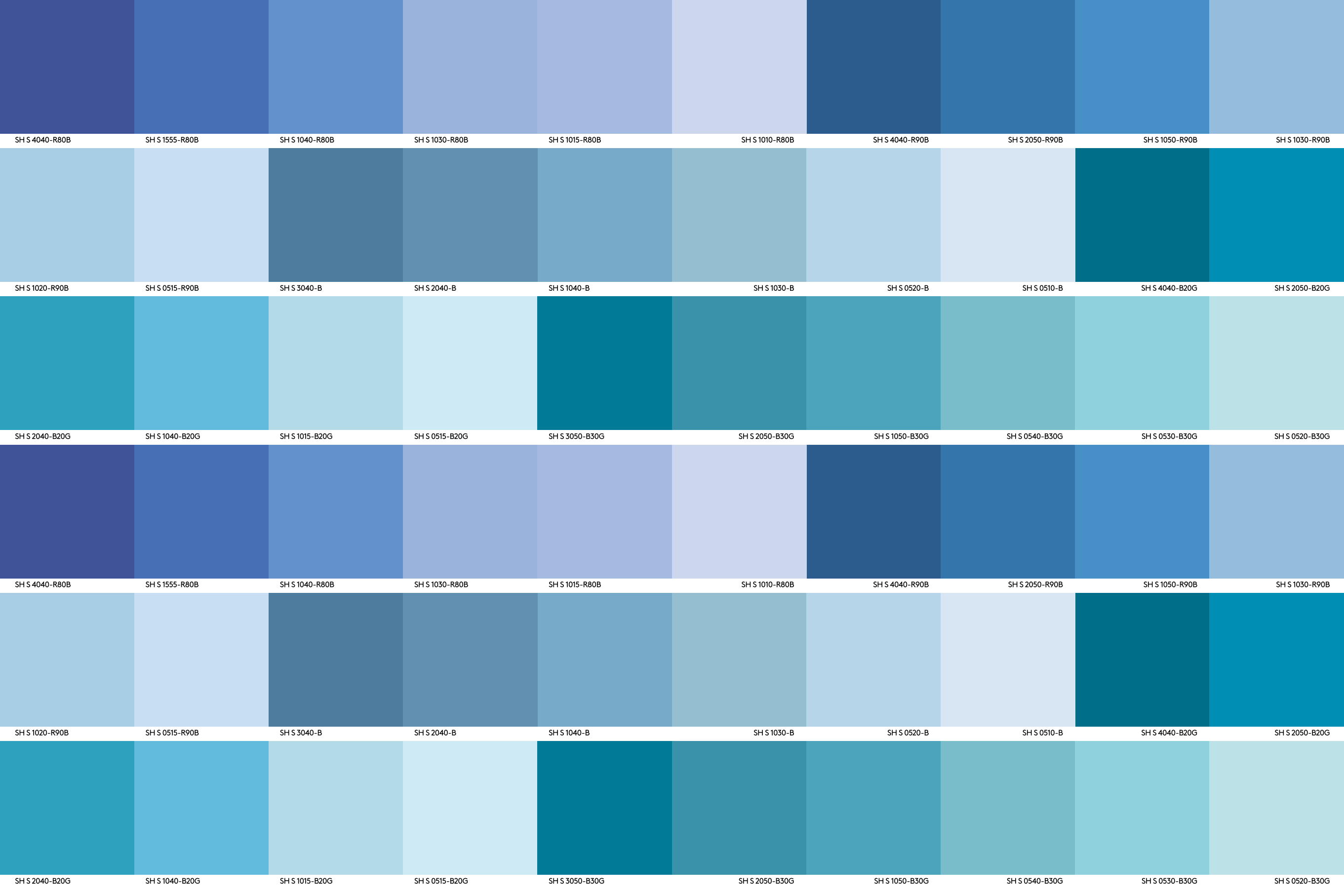


Samhwa & People

34
2019
SUMMER

PAINT
MAGAZINE
WALL





08 Opening Column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 Wall

10 Trend Column

뉴트로(Newtro),
복고를 넘어 새로움을 입다

14 Trend Discovery

친숙하거나,
혹은 신기하거나
상수동화



18 Interview

모두를 위한 WALL을 만드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범민

22 Styling

WALL 페인팅을 위한
스타일링 아이디어

28 How to Color

WALL COLORING IDEA

30 How to Paint

WALL 셀프 페인팅의 모든 것



34 Q&A

WALL 페인팅을 위한 Q&A

36 Art

아이러니의 매혹,
블루

42 Focus

라이프 캔버스(Life Canvas)

46 New Product

그린마스터 200
인플러스 라돈가드

48 Friends

부산 '건일개발' 허윤영 대표

52 Color Magazine 1

2019 Interior Trend
Color Package

56 Color Magazine 2

아파트 재도장 우수사례

58 Exiting Challenges

박지영·백승아·김선아 대리의 와이어아트 클래스
굽히며 이어가는 선(線) 속에 나를 담다



62 CSR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청각 도서 <국악기> 책자 제작

64 NEWS

삼화페인트 주요 뉴스

66 NEWS+

2019년 삼화페인트
수도권 본부 워크숍 개최

68 Survey & Event

New Samhwa & People



70 Culture Club

삼화엔피플 독자를 위한
전시 초대 이벤트



나만의 공간을 물들이고 싶다

파리 에펠탑의 미술관 식당,
몰디브의 수중 호텔은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오지만 항상 곁에 있는
집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
매일의 즐거움이 된다.
자, 눈을 감고 이 곳에 어떤
컬러를 채울지 상상해보자.



소통의 캔버스로 새롭게 태어나다

우리는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벽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그런데 여기 '존 레논 통곡의 벽'은
소통과 평화의 상징으로 통한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벽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다.
어떤 사물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한다.

2019년 Samhwa People은 우리 삶의 주요 공간인 'Home'을 메인 테마로 앞선 감각과 트렌디함이 살아 있는 페인트 라이프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봄호 Door를 시작으로 이번 여름호는 Wall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가을호 Furniture & Deco, 겨울호 U & Pet도 기대해주세요!

DOOR

WALL

FURNITURE & DECO

U & PET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벽을 바꾸다

<Samhwa & People>의 테마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 Wall'입니다.

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열림과 닫힘을 통해 장소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건축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축에서 벽은 영역 구분의 기능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있죠. 벽을 바꿔 새롭게 연출하면 삶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처럼 말이죠.

버려진 공장이 예술의 장으로 탈바꿈하다

한옥마을과 전주국제영화제의 도시 전주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팔복예술공장'이 그곳인데요, 팔복동 공단은 전주 산업화를 이끄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1979년 팔복동에 세워진 '쏘렉스' 공장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해 아시아 곳곳으로 수출하며 카세트테이프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음악 시장의 변화와 함께 문을 닫아 25년 동안 폐공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버려져 녹슬어가던 쏘렉스 공장은 공장 전체가 예술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예술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작가들의 작업실, 현대 예술의 과거-현재-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 공간, 아이들을 위한 무한 상상 예술놀이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카페와 아트숍,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예술정원 등이 많은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공장 안쪽 벽은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되고, 바깥 벽은 아이들의 무한 상상이 피어나는 도화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다시 태어난 팔복예술공장은 버려진 벽의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컬러로 아이들의 표정을 바꾸다

팔복예술공장이 버려진 건물의 운명을 바꿨다면, 이들의 벽 꾸미기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아동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 'Invisible to visible'의 일환으로 특수학교를 밝고 환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화페인트는 시각장애아동

이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컬러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페인트 지원을 진행해왔습니다. 낮고 단순했던 공간이 예쁘게 바뀐 뒤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에 봉사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손을 잡고 함께 벽을 바꾸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는 마법이 일어난답니다.

벽화의 힘으로 마을의 운명을 바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벽화마을로 꼽히는 경남 통영 동피랑. 대한민국 벽화마을의 선구자인 동피랑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예쁜 벽화마을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거를 앞둔 낡고 허름한 마을이었지요. 마을이 없어질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머리와 마음을 맞댔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낡은 벽에 그림을 그렸고, 시민단체는 '동피랑 색칠하기-전국벽화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살리고픈 수많은 이들의 소박한 마음이 모여 동피랑은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다시 태어났게 된 것이지요. 2014년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획득한 동피랑은 2년마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벽화를 단장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동피랑은 마을 전체의 벽을 바꿔 죽어가던 마을과 도시를 되살려낸 놀라운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벽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뉴트로(Newtro), 복고를 넘어 새로움을 입다

촌스러운 것이 가장 hip할 수 있는 문화,
과거의 시간을 오늘의 시간으로 끼집어내는
사람들의 뉴트로에 대한 이야기.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LP판의 부활에 맞물려 깜찍한 디자인의 휴대용 LP 플레이어가 호소평에서 히트를 치고, 카세트 플레이어와 즉석카메라, 옛날 게임기가 10대들의 '잇템'으로 자리 잡았다. 낡고 허름했던 건물이 감각적인 카페로 탈바꿈해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노인들만 가는 곳이던 구제 벼룩시장은 주말마다 젊은 '패피'들로 가득하다. 음악, 패션, 쇼핑 등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지금 레트로를 넘어 뉴트로의 시대다.

과거 회귀 아닌 '낯익은 새로움'

뉴트로(Newtro)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가 합쳐진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사회적 경향을 말한다. 용어가 다르듯 레트로와 뉴트로의 엄연히 다르다. 레트로가 '돌아온 복고'라면 뉴트로의 '새로운 복고'인 것.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밤과 음악 사이'가 불러일으킨 돌아온 복고 열풍의 키워드는 '옛것'과 '추억'이었다. 딱딱하고 힘겨운 일상에 지친 장년 세대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낸 드라마와 90년대를 수놓은 대중가요로 행복했던 옛 추억을 떠올렸던 것.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에 들었던 감성 짙은 노래, 단체 미팅 자리에 한껏 멋 부리느라 입었던 옷, 첫사랑과 함께 먹었던 음식 등 모든 것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떠오른다. 기억과 추억은 그렇게 우리에게 잠시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해주었다. 장년 세대가 1990년대 문화를 복고로 추억할 때 젊은 세대에게 복고는 '촌스럽지만 새로운' 매력을 물씬 풍기며 다가왔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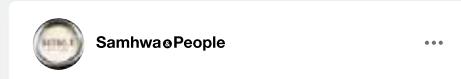
은 세대들에게 불편함과 촌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아날로그적 감성이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한마디로 뉴트로란 중장년층의 추억과 향수를 채워주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호기심과 즐거움도 충족시켜주는 문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보헤미안 랍소디'가 쏟아올린 큰 공

2018년 10월 개봉한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는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중 대한민국에서만 2019년 4월 14일 기준 1천만에서 5만 3천 명 모자란 9백9십4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지금까

지 나온 음악 영화 중 최고 기록임은 말할 것 없고, 단순히 영화 흥행에서 그치지 않고 연예계와 광고계까지 접수하며 '퀸 현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헤미안 랍소디의 이례적인 흥행 요인의 하나로 '뉴트로'를 꼽았다. 밴드 퀸과 프레디 머큐리를 그리워하던 40, 50대



**뉴트로 감성은 인테리어에서도
비껴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19 뉴트로 인테리어의 키워드는
‘빈티지한 색감’, ‘믹스 매치 가구’,
‘복고 소품 활용’ 등이다.**

장년층의 추억 마케팅이 적절한 것이 1차 흥행 요인이라면, 쿨의 음악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란 10대와 20대 관객까지 사로잡는 뉴트로의 비결이 크다.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쿨의 음악이 옛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한편 요즘 감각과도 어울리는 뉴트로에 딱 들어맞는 매개체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계, 산업계는 뉴트로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뉴트로의 핵심 소비층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떠오르고 있는 것.

1020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아라!

최근 뉴트로를 이끄는 주역이 중장년층이 아니라 10대와 20대라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젊은 세대가 복고에서 맛보고 싶어 하는 매력 요소는 바로 ‘새로움’이다. 복고와 새로움은 언뜻 충돌하는 의미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맞닿은 부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들던 수십 년 전 가방이 딸에게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가오고, 아빠가 어릴 때 뛰어 놀던 좁고 낡은 골목길이 아들에게는 불편하지만 정겨운 공간으로 다가온다. 너무 빠른 유행 속에서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옛것이 주는 푸근한 신선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업계는 10대, 20대의 뉴트로를 자극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업계는 단종됐던 옛날 과자와 식품을 재출시하며 복고풍 포장을 선보여 시선을 끌고, 낡은 건물을 최소

한으로 고쳐 빈티지 감성을 살린 인테리어 카페는 SNS 촬영 명소가 되고 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옛 문화와 그 시절 생활상을 체험하려는 움직임은 과거 콘셉트의 사진관, 복고풍 의상 대여점의 성업도 이끌고 있다. 뉴트로 감성의 확산은 상표 출원 현황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9년 5월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복고풍 이름을 가진 음식점 등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어식 상호 일색에서 벗어나 토속적인 ‘~당’, ‘~옥’ 같은 상호가 늘고 있는 것.

낡은 것과 새것의 조화, 뉴트로 인테리어

뉴트로 감성은 인테리어에서도 비껴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2019 뉴트로 인테리어의 키워드는 ‘빈티지한 색감’, ‘믹스 매치 가구’, ‘복고 소품 활용’ 등이다. 촌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체리색, 옥색 등이 베이지, 그레이, 블랙 등 현대적인 모노톤 색채들 사이에서 포인트로 활용되면서 분위기를 운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아울러 모던한 가구들에 낡은 엔틱 가구 한두 점을 적절히 배치하면 뉴트로 감성을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다. 뉴트로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싶지만 집에 손을 댈 수 없을 때는 복고 느낌의 소품을 활용해보자. 낡고 오래 돼 약간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작은 소품 하나가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는 뉴트로 감성의 어린 라이프를 위한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고풍스러운 콘솔, 포근한 느낌을 주는 러그, 웨인스코팅으로 마감한 벽면 등이 레트로 인테리어를 완성해준다. 또한 레드 계열의 페인트와 자연 친화적인 원목 소재를 배합하면 레트로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53page Color Magazine을 참고) 이렇듯 뉴트로 열풍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옛것과 새것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친숙하거나, 혹은 신기하거나 상수동화

헤어숍이라는 현대의 공간에 천 년 공예 나전칠기(자개박)가 결합되어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상수동화'이다. SNS상에 '개화기 미용실'이라는 별명도 생기며 뉴트로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오래된 나전칠기가 가진 세월의 풍상,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벽과 기둥의
모더니티, 레트로한 감성의 여러 소품들이 고객의
휴식 공간과 스타일링 공간을 두루 덮으며 안배돼 있다.



Powdery White
SH S 0502-Y50R

Thyme Green
SH S 4020-G10Y

Dark Cave
SH S 8502-G

시에 인간적인 공간이다. 헤어숍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어지럽게 소품을 늘어놓고 조명으로 가리며 만든 공간이 아니다. 오래된 나전칠기가 가진 세월의 풍상,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벽과 기둥의 모더니티, 레트로한 감성의 여러 소품들이 고객의 휴식 공간과 스타일링 공간을 두루 덮으며 안배돼 있다. 고객의 휴식을 위한 바를 비롯해, 자개농의 문짝과 어우러지는 식탁 등은 모두 독특한 분위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품은 공간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혼수로 자개장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우리 삶에 '흔한 것'이었던 물건들이 자취를 감춰, 이제는 간혹 보이면 신기하기도, 추억을 자극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친숙하기도, 반갑기도, 신기하기도 한 공간이 바로 상수동화이다.

전통, 현대에 살다

'상수동-화', '상수-동화' 명칭부터 상상력을 자극한다. 장영진 대표가 의도한 대로다. 어릴 적 펴보던 동화의 감성이 주는 정다운 어감을 살리면서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네 자짜리 단순하고 임팩트 있는 작명.

문을 들어서면 우선 시골집 안방에서 봤을 법한 큰 경대(거울대)들이 단박에 눈을 사로잡는다. 곱돌아서가 아니다. 나전칠기가 모던한 공간에 전혀 어색하지 않아서다. 상수동화는 이 경대처럼 나전칠기를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만 활용하지 않았다. 화려한 경대와 자개농 문짝을 활용한 파티션, 서랍장과 트레이 등은 실제로 쓰이는 습의 도구들이다. 이미 친숙한 것인데 새로운 공간에서 보니, 새롭다. 현대의 '살이'들에 전통이 걸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착한 모습이다.

숍 안의 전체적인 배색은 그린-카키. 차분한 카키 컬러감에 노출 콘크리트의 모던한 감각, 우리 옷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광택이 도는 블랙, 진주색이 주는 부드러운 화려함의 자개가 어우러져 상수동화만의 감각을 자아낸다. 전체 공간에 비해 덩치가 다소 커 보이는 화분들도 분명히 역할이 있다. 가구들만으로는 심심할 공간이 곳곳에 위치한 살아있는 것들에 의해 마지막 안정감을 더한다.

2층 구조 상수동화의 공간은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동



사용자 확대가 뉴트로 본질

지구상 유일하게 진주나 자개만이 가능한 '탁한 우윳빛 혹은 핑크빛의 광택'. 일반적인 화려함이 주는 부담감 대신 자개의 컬러는 고아하다. 거기에 옷칠의 은은한 검정 광택이 더해진 것이 바로 우리 나전칠기이다. 몇 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기능성은 덤이다. 현대의 공간에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 우리 전통 공예이다.

요즘 들어 재조명받는 나전칠기이지만, 좋은 만큼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한다. 어쩌면 바쁜 일반 사업장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까다로운 아름다움이다. 장 대표는 독일에서 수입해온 특수 기름을 매주 가구들에 바르며 특별 관리하고 있다.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취미활동이라고 말한다.

상수동화의 나전칠기들은 사실 장 대표 수집품의 일부일 뿐이다. 좋은 자개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장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녔다. 돈이 많은 항구도시 목포의 칠기는 화려하고, 양반 동네 안동의 칠기는 청량하여 자개가 적고 여백의미를 살린 느낌이라며, 지역적 특색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장 대표는 수집품 중 습에 어울릴 것들을 엄선하고 실용적으로 리폼해 고객의 스타일링을 돕는 실제의 제품으로 상수동화에 들고 있다.

상수동화의 대다수 소품들은 장 대표의 이런 손길을 거쳐 탄생했다. 일반 헤어숍과 다른 상수동화만의 의자도 그렇다. 적당한 공장 제품이 아니라, 메이크업 습의 제품에 쿠션을 덧대는 등 리폼하여 새롭게 만든 의자이다. 기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잡은 상수동화표 가구.

우리는 때때로 오랜 것의 사용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분을 바르고 영양크림을 바르는 곳이어야만 익숙했을 안방 한쪽의 경대. 그 지점에서 새로운 누군가는 최신의 레이어드 컷이나 밀본 염색 같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며 설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바람인 뉴트로이다.



A
상수동화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3안길 2
02-332-7634

모두를 위한 WALL을 만드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범민

서양 영화나 서울 홍대 거리에서 간혹 보이던 그래피티를 양지로 이끌어낸 아티스트 범민. '모든 이의 행복', 그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드는 이유다. 사진 범민 스튜디오

그래피티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제 태그네임인 BFMIN(ButterFly Min)도 그래서 나온 거죠. 나비처럼 자유롭게! 질풍노도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항상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예과로 진학했고, 친구를 통해 처음 그래피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주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불가리, 나이키, 현대카드 등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아트 워크를 통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제 작품을 통해 소외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이태원지구촌축제
2. PUMA x 범민
3. 범민





1. 불가리 X 범민
2. 바스키아 X 범민
3. 꿈자연
4. L7호텔 X 범민

그래피티가 생소할 독자들을 위해 작가로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고대의 동굴벽화부터 이집트의 상형문자까지, 모두 '벽에 긁어 새긴다'라는 점에서 그래피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그래피티는 스프레이 페인트가 흔해지면서부터입니다. 뉴욕 할렘 뒷골목을 비롯한 도시를 기점으로 발전했어요. 힙합의 한 장르로 여겨지기도 하죠. 사실, 같은 그래피티 작가끼리도 그래피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이 다릅니다.

‘공공예술’부터 ‘반달리즘’까지 그래피티 아트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래피티가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피티의 근간인 ‘저항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항의 본질은 바로, ‘다 함께 행복하자’라는 것일 겁니다. ‘자유를 위한 저항’ ‘행복을 위한 저항’ 개인이 부리는 심술과 분명히 다른 지점에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제 스스로는 이런 그래피티의 정신에 더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대단족입니다.

그래피티가 다른 예술 활동과 차별화되는 점, 독자(관객)에게 어필하는 매력은 어떤 것인가요.

점점 다양한 오브제(도기, 현수막, 휴대폰 케이스 등)로 그래피티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생이 스트리트 아트이니 어떤 방법이라도 아티스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일 뿐이죠. 갤러리가 아닌 야외에서, 삶의 날것을 매일 마주하는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역시 그래피티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래

피티 특유의 굵직한 표현방식들 그리고 큰 스케일이 매력적이예요.

작품 활동에 영감을 받는 원천이 있을까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통 자연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아요. 산, 바다, 들, 별, 비, 동·식물, 공룡 등. 또, 꿈속에서 얻은 영감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두 스타일도 다른 거고요. 자연은 제게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서울대공원 곤충관 외관정비 사업에 참여한 일은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했던 작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그래피티 작품에 비해서 다채로운 컬러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와 작품의 주제에 따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해요. 아마도 제가 이게 맞겠다 싶어 선택한 컬러가 제 작품 스타일의 일부가 되었을 거예요.

서울대공원 곤충관 외관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변의 어떤 공간들은 그 공간의 이용자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조금만 바뀌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절대 뽐내고자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은 아니에요(웃음). 그냥 남들처럼 제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사람과 제 작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 공간을 누비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에피소드도 있을 거 같아요.

재능기부 활동으로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마을에 그림을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오래 전 행방불명된 당신의 아들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아들을 그려달라



고 하셔서 그러셨더니,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도 한참을 먹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를 위해 최신 뉴스가 있을까요. 독자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화 작가에게는 먹물이 있고, 조각가에는 돌과 나무가 있듯 제겐 페인트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매일을 만나세요.

WALL 페인팅을 위한 스타일링 아이디어

공간에 맞는, 취향에 딱 맞아떨어지는
Wall 페인팅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팁을 화보로 모아보았다.

Wainscoting

웨인스코팅은 17세기 유럽 석조 건물의 단열과 습기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식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몰딩으로 발전했다. 특유의 클래식한 느낌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에 탁월하다.

SH S 0300-N Milk White

Pattern and Decoration

보색을 대비하거나 비슷한 톤으로 컬러링하거나 기하학 무늬, 공간 분할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페인트다. 특히 정해진 구조의 집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패턴과 장식의 Wall 데코에 주목해보자.



둥근 형태의 따뜻함과
블루 컬러의 쿨함이 색다른 공간을
만들어낸다.



SH S 1002-Y50R Ceramic Fluid
SH S 1020-B10G Aqua Blue



화이트와 한 가지 컬러의 조화가 만들어낸
공간이지만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SH S 0502-Y Whipping Cream
SH S 0550-Y Primrose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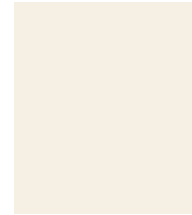
WALL COLORING IDEA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컬러다. 컬러 중에서도 가장 큰 면을 차지하는 벽을 어떤 컬러로 물들이는가로 전체적인 무드가 결정된다. 내추럴 무드부터 어반 시크까지 삼화페인트가 제안하는 벽 컬러를 만나보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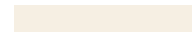


Natural Mood



Whipping Cream

휘핑크림
SH S 0502-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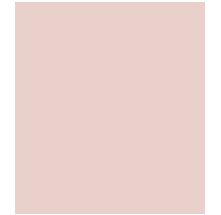
Light Elm

라이트 엘름
SH S 2005-Y20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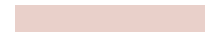
Ash Gray

애쉬 그레이
SH S 2000-N



Rose Mine

로즈 마인
SH S 1010-Y90R



Newtro Mood



Cold Stone

콜드 스톤
SH S 1502-R



Beige Nutmeg

베이지 너트맥
SH S 2010-Y40R



Caramel

카라멜
SH S 3040-Y50R



Thyme Green

타임 그린
SH S 4020-G10Y



Soft Mood



Rainforest Dew

레인포레스트 듀
SH S 1510-G



Dove Gray

도브 그레이
SH S 2005-B20G



Urban Chic Mood



Silver Gray

실버 그레이
SH S 2500-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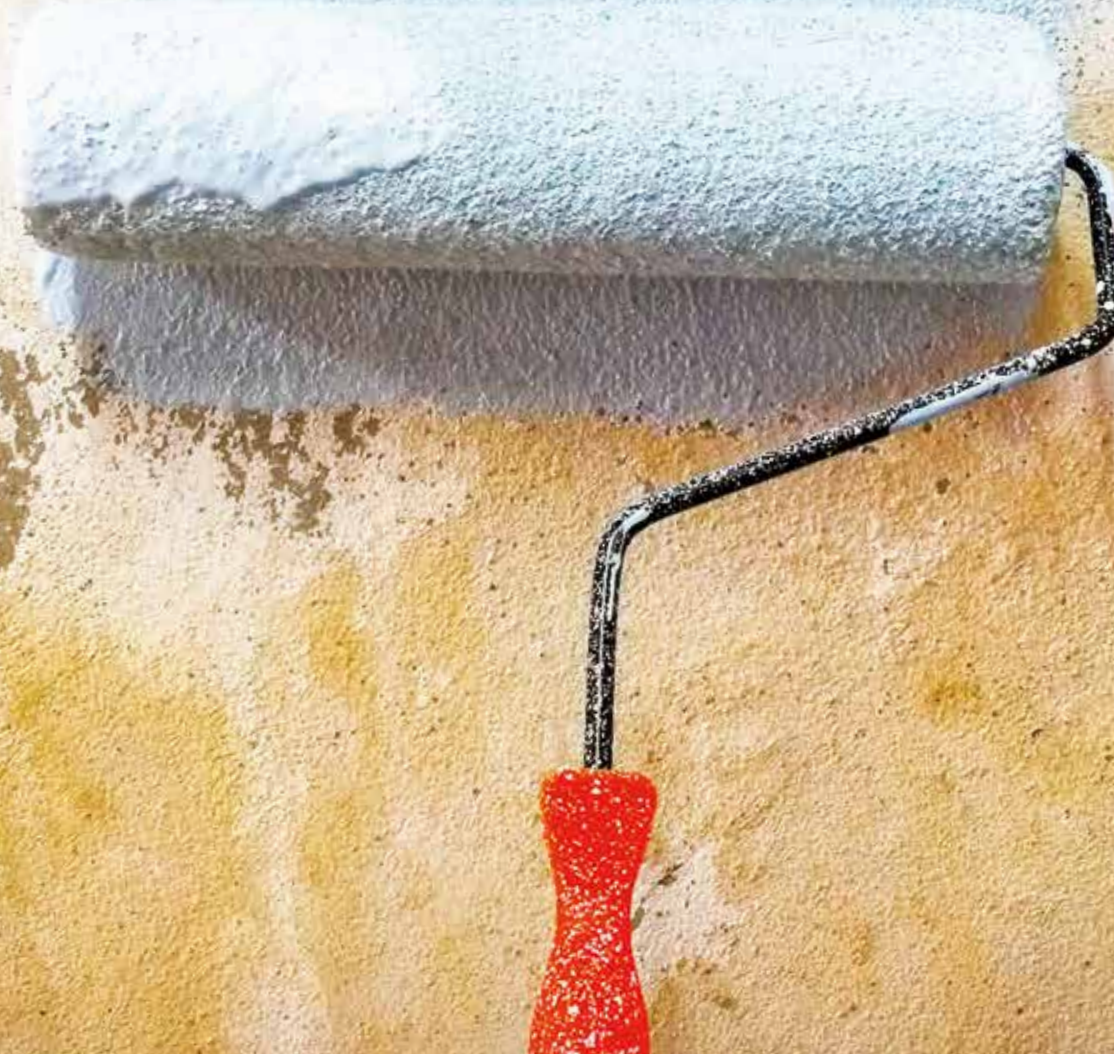
Dim Gray

딤 그레이
SH S 7000-N



WALL 셀프 페인팅의 모든 것

자, 이제 컬러도 결정했다면 어떻게 바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자. 페인팅 순서와 도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페인팅으로 나만의 공간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WALL 셀프 페인팅

1 표면 정리-벽면 이물질, 곰팡이, 구멍 정리

페인팅 전 벽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페인팅을 해야 깔끔한 벽면을 완성할 수 있다. 마른걸레로 먼지 등을 제거하고, 곰팡이가 있다면 곰팡이를 제거한 후 벽면을 잘 말리고 페인팅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다면 퍼티나 메꾸미로 메꿔 벽면을 평평하게 만든 후 페인팅을 하자.

2 페인트가 묻지 않아야 할 곳 보양

페인팅은 보양작업만 잘해도 반은 끝났다는 말이 있다.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해야 그만큼 완성도가 높아진다. 마스킹테이프와 커버링테이프를 이용해 경계선과 페인트가 묻지 않아야 하는 바닥이나 가구 등에 테이핑을 해준다. 마스킹테이프의 경우 15~50mm까지 두께가 다양하고 커버링테이프의 경우 45~150cm까지 펼칠 수 있는 비닐의 길이가 다양하다. 신문지는 페인트가 스밀 수 있으니 꼭 비닐 시트를 사용할 것.

3 필요에 따라 젯소를 얇게 도장

벽면 페인팅 시 항상 젯소 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포인트 벽지 등 기존 벽지·벽면 컬러가 강하고 화려한 경우에는 젯소를 1~2회 먼저 얇게 도장한 후 벽지·벽면 페인트를 칠해주자. 젯소는 페인트 발색력과 접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페인트가 좀 더 오래 유지된다.

4 페인트 2~3회 도장

페인트는 2회 페인팅이 기본으로 수성페인트인 경우 첫 번째 페인트칠이 건조되면(1~2시간) 2회차 페인트칠을 한다. 페인트는 좁은 면에서 넓은 면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스위치, 콘센트, 모서리 등 좁은 면을 붓으로 먼저 페인팅하고 넓은 면은 롤러로 W나 M자 모양으로 페인팅 한다. 페인팅이 모두 끝나면 충분히 건조시켜 주는 것이 좋으며, 반건조된 상태에서 마스킹·커버링 테이프를 제거해 주면 된다. 셀프 페인팅 경험자들이 말하길, 테이프를 제거하는 이때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한다.

브러쉬 & 롤러 사용법

브러쉬는 몰딩 경계나 벽면 모서리와 같이 좁은 면을 칠할 때 사용되며 벽 페인팅의 경우 2인치(50mm) 앵글 붓을 사용하면 된다. 롤러는 넓은 면을 칠할 때 사용되며 벽면 페인팅 시에는 7~9인치(150~215mm) 롤러가 적당하다. 최근에는 페인트 패드 등 페인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도 있으니 나에게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면 페인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여자들의 경우는 굵기가 얇은 롤러가 페인팅하기 좀 더 편리하다). 페인팅 시 도구에 너무 많은 페인트가 묻으면 페인트가 뭉치거나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트레이에 잘 덜어낸 후 적당량을 페인팅 해주어야 한다. 한 번에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

페인트량 계산하기

페인트 소모량이 궁금하다면 칠하고 싶은 벽면의 가로, 높이를 측정해 전체 면적을 알아두고 보통 3m X 2m (6㎡) 정도의 구역을 칠할때 1L(2회 도장 기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보통 집 안의 높이는 2m 정도이니 칠할 면적의 가로 사이즈만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1L면 보통 작은 방 1면 정도를 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벽면 상태나 도장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닥이나 피부, 옷에 묻은 페인트는 어떻게 하나요?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즉시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수성페인트가 바닥이나 피부에 묻은 경우 물티슈로 닦으면 잘 지워지고, 옷에 묻은 경우에는 물로 닦아주면 된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불린 후 손으로 비벼서 세탁한다.

WALL 페인팅 TIP

셀프 페인팅 도구의 모든 것

롤러

롤러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실내 벽면은 150~215mm(7" 또는 9"), 문 또는 가구 리폼용으로는 100~150mm(4"~6") 롤러를 사용한다. 롤러 커버 선택 시 모 길이는 페인팅할 벽면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시멘트 벽처럼 표면이 거칠다면 중모(털 길이 15~26mm), 매끈한 벽이나 평평한 면에는 롤러의 털 길이가 짧은 단모(털 길이 5~11mm) 또는 스펀지 폼 롤러를 선택하면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페인팅이 가능하다.

브러쉬(붓)

몰딩, 벽면 모서리처럼 좁거나 구석진 곳을 페인팅할 때 사용하기 편리한 브러쉬는 털의 종류에 따라 천연모 브러쉬와 합성모 브러쉬로 나눌 수 있다. 합성모는 건조가 빠른 수성페인트를, 천연모는 유성페인트를 페인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프너

페인트 통을 개봉할 때 사용하는 도구. 만약 오프너가 없다면 50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지렛대처럼 사용해도 쉽게 페인트 통을 개봉할 수 있다.

트레이

트레이는 적당량의 페인트를 덜어 사용하는 팔레트와 같은 도구이다. 페인팅 트레이 사이즈는 롤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롤러보다 조금 큰 트레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편한 사용을 위해 트레이에 비닐을 씌워 사용해보자.

최근에는 페인트 패드 등 페인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도 있으니 나에게 잘 맞는 도구를 선택하면 페인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마스킹·커빙테이프

페인팅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양작업이다. 몰딩, 문틀, 손잡이, 콘센트나 스위치 주변 등 페인트가 묻지 않고 깨끗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스킹테이프는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손쉽게 손으로 찢어 사용할 수 있다. 커빙테이프는 마스킹테이프에 넓은 비닐이 붙어있는 형태로 바닥이나 가구 등에 페인트가 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핸드 믹서

페인트는 사용 전 반드시 충분히 섞어준 후 페인팅을 해야 페인트 발색이 좋아지며 질감도 고르게 나온다. 오픈 전 페인트를 충분히 흔들어서나 핸드믹서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잘 섞어준다.

스크래퍼(헤라)

페인팅 전 작업 부위의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스티커 등 이물질질을 긁어낼 때 필요한 도구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손잡이와 주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펀지 브러쉬

각진 모서리 부분을 작업하기에 편리한 스펀지 브러쉬는 주로 수성 스테인이나 바니쉬 등 소품을 리폼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일반 브러쉬나 롤러보다 표면에 밀착감 있게 표현되고 브러쉬 자국이 많이 남지 않아 초보 페인터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구이다.

페인트 패드

롤러와 함께 넓은 면적에 사용하기 편리한 페인트 패드는 벽면을 문지르지 않고 쓸어 내리는 방식의 손쉬운 사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페인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페인팅 시 페인트가 옆으로 튀지 않아 깔끔하고, 자국이 많이 남지 않으며, 패드의 분리, 세척, 리필 교체도 간단하다.

폴대

롤러나 페인트 패드 등에 연결해 높은 곳이나 천장 페인팅을 도와주는 도구로 일반 가정집이라면 2단 폴대를 끼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WALL

페인팅을 위한 Q&A

Q 사용하던 페인트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할까요?

수성페인트의 경우 영하의 온도에서 동결될 수 있는데 한 번 얼었던 페인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보관해야 하며, 잘만 보관하면 1~2년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성페인트는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꼭 뒤집어서 실온에 보관해주세요.



Q 벽지 위에 바로 페인팅이 가능한가요?

벽지 페인트는 합지 벽지, 실크 벽지 위에 바로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벽지를 뜯어내지 않고 페인팅이 가능하합니다. 단,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거나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보수하고 페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벽지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풀로 붙이거나, 핸디코트 같은 제품으로 벽면을 평평하게 작업한 후 벽지페인트를 칠해야 벽면이 예쁘게 마감됩니다. 꽃무늬 등 진한 무늬 위에는 젯소를 바른 후 페인팅해주세요. 젯소는 컬러 표현 뿐 아니라 접착력도 증가시켜주어 페인트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 추천제품 더클래시 아토프리 월페이퍼
홈스타 월페이퍼

Q 곰팡이가 핀 벽지에 페인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과 알코올을 4대 1 비율로 섞어 분무기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 곰팡이를 제거한 후 페인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곰팡이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아이생각 팡이닥터 먼저 페인팅한 후 벽지 페인트로 원하는 컬러 페인팅을 하면 됩니다.

— 추천제품 아이생각 팡이닥터

Q 페인팅 후 도구 세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성페인트로 페인팅한 경우, 페인팅 후 바로 물로 세척하면 도구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러는 커버를 분리한 후에 세제를 풀은 물에 충분히 헹구어주고 깨끗한 물에 3~4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롤러 커버는 소모품이므로 소가구에 사용했을 때는 3~4회, 벽면과 같이 넓은 면적에 사용했을 때는 1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린이집 벽을 페인팅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페인팅하고 싶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삼화페인트의 최고급 친환경 페인트 '더클래시 아토프리 인테리어' 제품부터 '아이생각 에코월', '아이생각 리프레쉬'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병원 등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공간 내부에 적합한 프리미엄 친환경 페인트입니다. '더클래시 아토프리 인테리어'는 친환경 인증은 기본, 업계 최초로 미국, 한국 천식 알러지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이생각 에코월'은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 물질인 암모니아(시멘트독 성분)를 제거하고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해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또 최근, 라돈가스의 실내 유입을 막는 라돈 저감 기능성 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를 출시했습니다. 삼화페인트의 최고급 친환경페인트로 아이들의 공간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 추천제품 아이생각 리프레쉬, 에코월
더클래시 아토프리 인테리어
인플러스 라돈가드

아이러니의 매혹, 블루

“자아를 매혹시키는 無” 괴테가 정의한 블루는 한없이 빨려 들어갈 듯 시선을 빼앗기는 ‘매혹’ 그 자체다. 반 고흐의 그림 속 블루 역시 매혹적이다. 소용돌이치는 하늘, 해처럼 밝은 달, 쏟아지는 은하수, 다양한 스펙트럼의 블루. 반 고흐의 블루에는 내재된 고통이 녹아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는 아이러니를 만난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Sunshine
SH S 0560-Y10R

Quartz Blue
SH S 2060-R80B

Brilliant Blue
SH S 5040-R80B

117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컬러, 양면성을 가진 아이러니의 컬러가 블루다. ‘우울’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블루는 외로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차갑다가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함이 퍼진다. 상실감을 담은 컬러지만, 정착 마추하면 무언가 채워지는 치유의 기능도 한다. 슬픔과 고통 이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컬러이기도 하다.

반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은 다채로운 블루 컬러,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를 통해 ‘고요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갱과 다빈치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으로 깊은 바다 빛 하늘에 열한 개의 별과 하나의 달이 빛난다. 그 사이로 힘차게 소용돌이치듯 구름이 지나가며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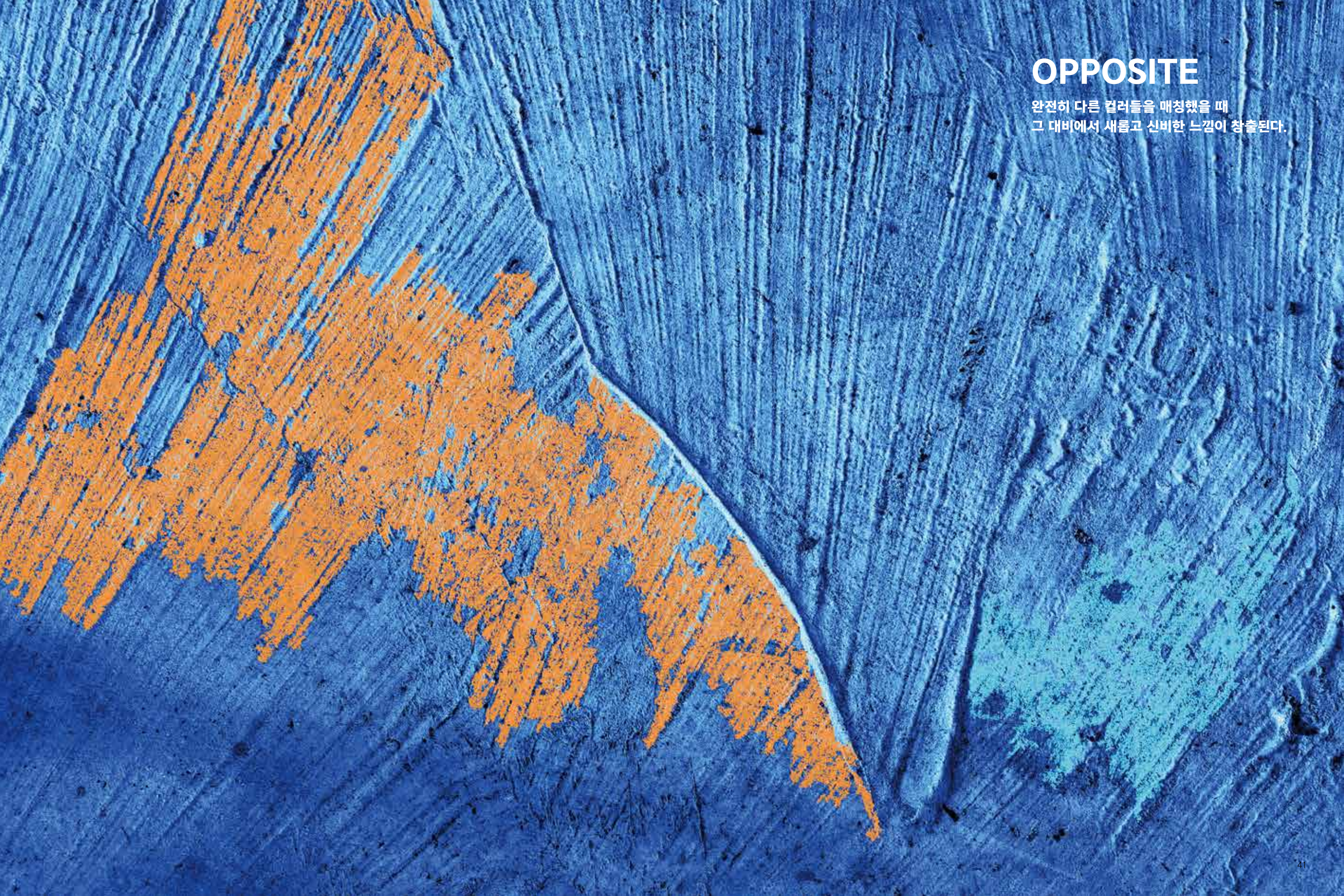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지듯, 고흐는 블루 컬러로 어둠의 내면을 표현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함께 담고자 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급스러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반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지향하며, 성공을 꿈꾸지만 이면에 고독감을 지니고, 보수적이면서도 때론 관습을 깨고 싶은 욕구를 가진 현대인의 멀티플한 감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VIBRANT

극도로 화려한 컬러들의 아름다움이 하모니를 이룬다.



OPPOSITE

완전히 다른 컬러들을 매칭했을 때
그 대비에서 새롭고 신비한 느낌이 창출된다.

Life Canvas

라이프 캔버스

변함없이 뛰어난 품질과 언제나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 페인트업계를 선도해 온 삼화페인트가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며 '라이프 캔버스(Life Canvas)'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하얀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삼화페인트의 컬러는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삶의 캔버스를 만들어 갑니다.

'라이프 캔버스'의 세 가지 키워드는 Real Color·Trendy·Integrity입니다. 이 키워드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전통을 유지하는 '삼화다운 컬러'와 미래지향적인 '트렌디한 감성'을 함께 담은 브랜드가 되겠다는 뜻을 담아냈으며, '진정성과 신뢰감'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삼화페인트 모든 구성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REAL COLOR

실제의 색을 구현하는

인생은 마치 캔버스와 같습니다. 텅 빈 공간으로 시작해 매일 다른 붓놀림을 통해 나만의 삶이 가득 채워지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Real Color'입니다. 삼화페인트는 고객분들의 삶의 캔버스를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하는 컬러 팔레트를 제공하기 위해 삼화페인트의 새로운 슬로건 '라이프 캔버스'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생생함을 컬러로 구현해내고자 합니다

Coral Reef
SH S 0515-Y60R

Madam Coral
SH S 1070-Y80R

Coral Buff
SH S 0520-Y80R

TRENDY

한 발 앞선 감각을 가진

'Real Color'가 제공하는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에 트렌디한 감각을 더합니다. 우리 삶의 주요 공간인 집을 중심으로 감성과 트렌디함이 살아 있는 페인트 라이프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지속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삼화페인트는 페인트매거진 <삼화앤피플(Samhwa & people)>을 창간하였으며 삼화페인트 내 컬러디자인센터에서는 시즌 트렌드 컬러를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화페인트는 최신 컬러 동향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 삼화페인트와 만나는 사람들의 취향은 무엇인지,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게, 어떤 인테리어를 추구하는지, 고객 중심에서 한 발 앞서 생각하며 컬러 및 제품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INTEGRITY

진정성 있고 신뢰감 있는

삼화페인트는 1946년 설립 이래로 70여 년 동안 지켜온 정직함에 대한 원칙을 기반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높은 품질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진정성과 신뢰감 있는 '삼화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객의 건강은 물론 지구의 환경과 미래까지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출시하며 단순히 인테리어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컬러를 입힌다는 것이 곧 삼화페인트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감성과 만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선,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감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삼화페인트의 행보를 지켜봐주세요. 당신 삶의 캔버스를 멋지게 채울 수 있도록. Life Canvas, SAMHWA.





환경친화적 2액형 방수재
그린마스터 200

삼화페인트는 여름 장마철 수요를 대비해 환경친화적인 방수재 '그린마스터 200'을 출시했다. '그린마스터 200'은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 수은 등 유독 물질로 분류되는 MOCA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방수재다. 또한 그린마스터 200 방수재는 구조물의 진동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도막 균열을 막아주고 매끄러운 마감이 가능하여 누수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라돈 저감 기능성 수성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

삼화페인트는 라돈가스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성 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를 출시했다. 라돈은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천연방사능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전 세계 폐암 발생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플러스 라돈가드'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 등 건축물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의 방출을 최소화한 기능성 내부용 수성도료로 피도물의 기공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등에서 나오는 라돈가스의 방출을 최소화시킨다.

부산 '건일개발' 허윤영 대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페인트 시공 외길을 걸어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바라던 아들도 자라나 어느새 그 아버지를 빼다 닮았다. 허윤영 대표와 허지훈 실장 부자(父子)는 '건일개발'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

2003년 설립한 건일개발은 근 20여 년 가까운 업력을 자랑하는 삼화페인트 대리점이다. 부산지역에서 페인트 시공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허윤영 대표의 공력이 담겨있다. 6년 전부터는 그의 아들 허지훈 실장이 함께하며 건일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허 실장은 아버지의 노하우를 열심히 흡수하면서 친구인 최철원 팀장과 함께 건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DIY,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인 시대, 앞으로 시공보다 직접 판매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하는 등 업계의 트렌드에도 민감하다. 페인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품의 온라인 판매량을 늘리는 등 현재 판매와 시공 매출비가 2:8 정도인 것을 5:5로 맞추고자 하는 바람이다.

건일 최고의 자랑은 '젊음'

허 대표는 페인트 시공업을 한 지 벌써 40년이 된 베테랑이다. 중동 파견 근무를 비롯해, 부산지역의 굵직한 사

업들에 다수 참여했다. 현장의 책임자로 쌓아온 그의 경력은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런 그이지만, 건일 최고의 자랑은 젊음이라고 말한다. "페인트 시공업이 3D업이라는 편견이 많아요. 2019년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기술직은 젊은 친구들이 회피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 실장이나 최 팀장 같은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시공팀에도 젊은 기능공들이 꽤 있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동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건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그는 업무의 많은 부분을 아들에게 넘기고, 조인가이자 최종 관리자로 자신의 역할을 점점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3년 정도 후에는 사업을 물려주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갈 생각이예요. 은퇴 후에는 제 꿈을 펼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직장, 허 실장의 어깨가 무겁다. "아직 아버지에게 배울 게 많아요. 시공 방법이나 상황



허윤영 대표와 허지훈 실장



왼쪽부터 최철원 팀장, 배경희 씨, 허윤영 대표, 허지훈 실장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만 한 사람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 성실한 것 말고 우리 남편 남자답게 잘 생겼기도 했죠.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주는 아들이나 팀장도 계속 잘해줄 거라 믿어요.” 경희 씨는 든직한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대견하다고 말한다.

결혼 2년차 허 실장은 얼마 전에는 귀여운 손자도 부모님 품에 안겨드리며, 효도를 했다. “사실 배울 게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미흡한 게 많아서 아버지 없이 제가 어떻게 할까 싶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저보다 항상 아는 게 많으세요. 부모님 곁에서 일하니 예전 아버지 마음이 그랬겠구나,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오래 고생하신 어머니도 대단하세요. 아마 그 세대 중에 제일 컴퓨터를 잘하실 걸요.”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은 아버지가 닦아온 길을 이제 함께 걷는다. 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도 약속하면서.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놀리지 않고, 허 대표는 아버지로써, 그리고 대표로서 가족과 건일의 분위기를 책임져왔다. “중동에서도 난 스타였어요. 딱 무대만 생기면 올라가고 그랬지.” 촬영을 위해 미소가 필요한 상황. 그의 한 방 너스레에 모두가 빵 터졌다.

대처 등 한참 부족합니다...” 다행히 10년 지기 막역한 친구 최 팀장과 함께 만들기로 한 비전이 있기에 외로운 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허 대표의 아들에 대한 평가도 박하지 않다. 6년 전 아들이 사업에 합류하여, 지금껏 잘해왔다는 평이다. 실장과 팀장이 젊은 사람치고 근성 있고, 부산말로 제이정신(정인정신)이 있다는 것.

사실 그 아버지께 그 아들, 허 대표의 성실함과 직업의식 또한 그 아들처럼 남다른 편이었다. 건일의 회계를 도맡아 하는 배경희 씨도 허 대표의 딱 한 가지, '성실성'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남편이 장남으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일해서 동생들을 키워내고 공부도 시키면서도 군소리 한 번 안 한 진짜배기 '상남자'라고 아내 는 남편의 지난 세월을 평가한다.

현장에서 체득한 최고의 상품성

자신과 가족의 생활수단이며, 동생들을 건사하게 해준 삼화페인트는 허 대표에게 그래서 더 특별하다. 지역에

동종 업체가 많다지만, 삼화페인트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곳은 건일밖에 없다.

“처음 페인트 시공업을 할 때부터 ‘페인트는 삼화페인트가 최고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 페인트를 다 써봐도 삼화페인트만한 것이 없었어요. 업자들은 한 번 써보면 알거든요. 제가 몸으로 40년 동안 체득한 최고가 바로 삼화페인트예요.”

허 대표는 별다른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40년 경력 기술력과 삼화페인트의 제품성을 믿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준다는 것. 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페인트 제품력에 성실한 사람들이 더해져 건일의 오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건일의 오늘을 만들어가는 구성원 모두는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이 많다.

“건일을 위해 지금껏 같이 애써준 아내와 아들 팀장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60대에는 고향 합천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허 대표에게 건일은 이제까지 그의 인생이었다.



내게 힘을 주는 아이템



건일개발 포트폴리오북
·허지훈 실장·최철원 팀장
일을 시작하며 같이 이런 포트폴리오북을 만들었어요. 소비자가 우리 작업물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영예에 큰 도움도 되고요. 볼 때마다 참 뿌듯해요.



손주 사진
·허윤영 대표
손주 사진을 일하다 힘들 때 한 번씩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납니다. 할아버지한테 손주보다 소중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전 장비
·배경희 씨
시공 중에 다친 것은 아니지만, 3년 전 남편이 사고로 다친 이후에 안전이 더욱 신경쓰여요.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시공 중인 직원들이 항상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2019 Interior Trend Color Package

최근 들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전에는 집이라 하면 단순 주거공간의 의미가 컸지만,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보다는 즐거움, 혹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취향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를 살펴보다 보면, 특징적으로 손꼽히는 몇 가지가 있다.



Trend 1. 뉴트로

감성주의 어반 라이프를 위한 인테리어 연출법

세대를 불문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뉴트로(Newtro)를 표현하고 싶다면 거실에 70~80년대 감성의 패턴 러그를 깔되 벽면은 웨인스코팅 디테일 등으로 모던하게 스타일링하여 촌스럽거나 올드해보이지 않게 연출하자. 레드 계열의 컬러와 원목 소재를 같이 매치하면 자연스럽게 뉴트로 감성이 연출되며 페인트 컬러 조합만으로도 뉴트로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ld Stone
SH S 1502-R

Beige Nutmeg
SH S 2010-Y40R

Caramel
SH S 3040-Y50R

Charry Cobbler
SH S 3050-R



Trend 2. 자연주의

웰빙 라이프를 위한 내추럴 인테리어 연출법

공간 자체의 자연스러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주의 인테리어는 굴곡이 많거나 각이 도드라지는 것보다 라탄이나 페브릭 소재의 가구, 소품으로 내추럴하게 공간을 연출하거나 원목이나 꽃, 식물 등을 활용한 플랜테리어 등의 웰빙 라이프 스타일링을 말한다. 자연주의 인테리어를 연출하고 싶다면, 누드와 크림 등의 컬러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가득 채워보자.

- Mushroom**
SH S 2005-Y60R
- Nude**
SH S 2010-Y50R
- Dune Cream**
SH S 1005-Y60R
- Willow**
SH S 4020-Y40R



Trend 3. 자유주의

홈오피스도 가능한 모던 인테리어 연출법

휴식, 일, 독서, 취미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연출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콘셉트이다. 거실 또는 방에 가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가볍게 구분 짓고, 심플하고 모던한 컬러인 실버 그레이, 페블 그레이, 퓨어 그레이 컬러로 페인팅해 홈오피스 감성을 불어넣어 보자.

- Silver Gray**
SH S 2500-N
- Pure Gray**
SH S 1000-N
- Pebble Gray**
SH S 1502-Y50R
- Coral Beige**
SH S 1510-Y50R

아파트 도장 우수사례

아파트들의 새로운 변신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컬러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장 아파트 컬러를 선정하고 디자인한다. 이번에 소개할 현장은 의정부민락청구아파트와 아산배방연화마을 주공 1단지, 7단지이다.

클 이미지 컬러디자인팀 과장



- Pure Gray
SH S 1000-N
- Ash Gray
SH S 2000-N
- Stone Gray
SH S 3500-N
- Storm Gray
SH S 5500-N

의정부민락청구아파트

의정부에 위치한 민락동 청구아파트는 그레이와 블루의 배색으로 아산배방연화마을과는 또 다른 모던함과 생동감을 담아낸다. 강조색의 블루와 주보조에 무채색을 배색하여 깨끗하고 세련된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리드미컬한 측벽 패턴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한 현장이다. 과감한 면 분할과 세련된 그래픽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효과를 전달하였고 중채도의 블루색상을 강조색으로 배색하여 청량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 Windsor Blue
SH S 5020-R90B
- Stormy Skies
SH S 3010-R90B



- Vanilla Gray
SH S 1002-Y
- Earth Gray
SH S 2502-Y
- Chrome Gray
SH S 4502-Y
- Dim Yellow
SH S 6502-Y
- House Green
SH S 2030-G70Y
- Eucalyptus Green
SH S 3040-G40Y
- Olive Shimmer
SH S 4040-G40Y

아산배방연화마을 주공1단지, 7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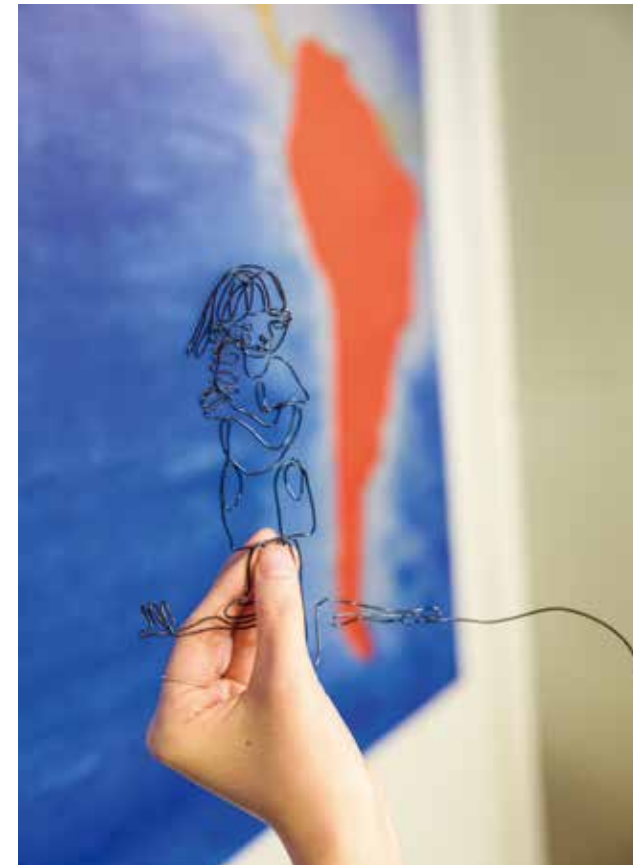
아산배방연화마을 주공1단지는 LH공사 색채 가이드에 따라 두 가지 톤으로 색채를 계획하였다. 자연의 생기가 느껴지는 다양한 톤의 그린은 사계절 나무에서 보여지는 내추럴한 그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생활의 활력을 주는 컬러로 배색되었다. 청량한 하늘을 연상시키는 블루를 메인이미지로 선정한 주공7단지는 다양한 블루 톤의 배색으로 세련되고 신선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블루와 그린은 유사 컬러 배색으로 단지 전체를 이루면서 내추럴 콘셉트를 완성했다.



- Pure Gray
SH S 1000-N
- Silver Gray
SH S 2500-N
- Clay Stone
SH S 4500-N
- Winter Sky
SH S 1510-R90B
- Alice Blue
SH S 2040-R90B
- Windsor Blue
SH S 5020-R90B

박지영·백승아·김선아 대리의 와이어아트 클래스 굽히며 이어가는 선(線) 속에 나를 담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와이어아트. 그저 와이어를 굽히고 이어가면 되는 간단한 작업 같지만 쉽지 않다. 창작자의 창의력과 손끝의 꼼꼼함, 공간을 구상할 때는 사고력마저 필요한 공예이다. 한창 길어진 낮 덕에 하늘이 참 아름다웠던 어느 저녁, 박지영, 백승아, 김선아 대리가 와이어아트에 도전했다.



좀 그려본 누나들이 뭉쳤다

각자 많은 업무를 하느라 고단했을 평일 저녁이다. 삼화 페인트의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한 세 명의 대리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퇴근 후 시간을 내어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카페 헤이데어)로 모였다. 박지영(컬러디자인팀) 대리, 백승아(광고디자인팀) 대리, 김선아(마켓운영팀) 대리가 그 주인공이다.

오늘의 강사 이현 씨(25)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와이어아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로 전시회도 다수 연 기성 작가이다. 휴학 후 전문가로 작품활동과 와이어아트 클래스를 병행하는 강사는 마침, 참석한 대리들과 같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다.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선배이자, 누나인 교육생들에게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며 수업 분위기를 이끈다.

“그림 좀 그려보셨네요!”라며 수강생들의 도안 그리기를 칭찬하는 강사. 서로의 전공을 알게 된 건 바로, 대리들의 놀라운 그림 실력 때문이었다. 남다른 그림 실력을 강사가 칭찬하며 대리들의 전공을 물어 알게 된 것. 물론, 와이어아트가 전공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와이어아트의 최대 장점이 아무리 망친 것 같은 공예라도 후에 결과물을 보면, 추상적인 형태가 항상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와이어에 담긴 ‘가장 행복했던 그때’

와이어아트의 첫 순서인 도안 그리기를 위해 수강생들은 준비해온 사진을 꺼냈다.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주제로 각자 준비한 사진이다. 모두 오늘을 위해 한동안 펴보지 않던 오랜 앨범을 꺼내보았다고 말한다. 김 대리는 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한껏 신나했던 표정의 사진을, 박 대리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기분이 좋았던 유년기의 사진을, 백 대리는 세상 모르고 순수했을, 젖살이 감쪽한 아기 때의 사진을 공개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그때 그 시절, 사진을 도안으로 옮기는 대리들은 당시의 행복했을 자신을 상상하며 하루의 피로도 절반쯤은 이미 덜어낸 표정이다.

다른 수업보다 수월하게 빨리 끝났다는 강사의 평을 들은 전공자 수강생들의 도안 그리기는 와이어 채우기로 과정을 이어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예용 와이어와 스카치테이프, 펜치.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창작의 시간입니다. 도안은 참고 용이예요. 머릿결 등 도안의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어아트는 기본적으로 한붓그리기





예요. 와이어를 끊지 않고 이어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막히면 더 가르쳐드릴게요.”

강사의 조언을 들으며 세 대리는 한붓그리기의 첫 점을 찍어나가기 시작한다. 강사의 말처럼 세 사람의 디테일은 제각각 자유로웠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박 대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이미지라 디테일을 표현하기 쉽지 않았다. 중요한 아이টে인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 그밖에도 깜빡하고 눈이나 코를 빼먹었다거나 방향을 모르겠다는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에 강사는 잘하고 있다고 그대로 괜찮다며, 펜치를 사용하면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며 팁을 건넨다. “나중에 조명을 비춰서 보시면 사뭇 더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마세요”라는 강사의 이야기를 믿으며 대리들은 열심히 와이어를 채워 간다.

김 대리는 이미지에 하트를 넣기 위해 부족한 와이어를 보충했고, 박 대리는 살짝 남은 와이어를 강사의 조언에 따라 지면과 풀 따위의 배경을 넣는데 활용했다. 백 대리의 작품은 순수한 아기의 디테일이 잘 표현되었다.

“유복하게 자란 귀여운 아기 같아, 너무 귀엽다!” 동료들은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와이어 채우기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명 따라 새로운 내 작품

대망의 테이프 떼기 작업. 조심조심 자신의 작품에 붙은 테이프를 떼는 수강생들의 손끝이 꼼꼼하다. 먼저 다 떼어낸 수강생부터 강사의 안내에 따라 벽에 대고 자신의 작품을 감상한다. 같은 작품임에도 도안을 벗겨내 보니 더욱 그럴듯하다. 기하학적인 느낌마저 주는 와이어아트 의 완성품. 뒤에서 강사가 휴대폰을 이용해 조명을 더하니, 벽에 투사된 그림자가 거리와 위치에 따라 마치 다른 작품인 양 새롭다. 김 대리는 작품의 포인트인 하트 문양을 연출하느라 가장 마지막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얼굴이 가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미 완성된 작품을 다시 매만진다.

자매처럼 친한 세 대리는 연신 감탄하며 서로의 작품을 촬영하기에 여념이 없다. 마지막으로 액자에 자신의 작품을 넣으며, 작품명을 생각해달라는 주문. 유복한

미니 인터뷰

박지영 대리 평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기 급한데 오랜만에 친한 동료들과 만나 대화하고 취미 활동도 개발하니 힐링이 따로 없었어요. 재료를 사서 한 번 더 도전해보아겠어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송아 대리 금손이 아니라 작업 중에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와이어로 선을 따라 그린 것뿐인데 그럴듯한 작품이 되어 손에 들리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든 것 같아 행복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김선아 대리 소재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이 배웠는데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신기했어요. 가까운 동료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어 선물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듯, 티 없이 순수한 아기의 모습을 가진 백 대리의 작품명은 <Young & Rich>, 하트와 행복한 미소가 한가득 담긴 김 대리의 작품명은 <Lady heart>, 아이스크림을 들고 신났을 본인의 유년기를 형상화한 박 대리의 작품은 <the Girl with Ice cream>. 작품의 특징을 잘 담은 명명이다. 미술에 일가견이 있는 대리들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자신을 닮은 결과물을 만나는데, 와이어아트도 마찬가지로 신기하다고 말한다.

오늘 수업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젊은 대리들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일과 연애. 각자의 최신 이슈를 놓고 벌이는 수다와 강사의 농담까지. 동생 강사와 이내 친해진 지점은 누나 대리님들은 TMI 강사님이라며 동생 강사를 놀리기도 했다. 오늘 동료들을 모은 백 대리, 회식을 즐긴다는 김 대리, 집에서 꼭 한 번 와이어아트를 다시 해보아겠다는 박 대리. 와이어아트 원데이 클래스 참석자 모두는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모처럼 알차게 보낸 수요일 저녁이었다고 자평했다.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청각 도서 <국악기> 책자 제작

삼화페인트가 색과 사물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동에게 다채로운 꿈과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한 책 만들기에 나섰다. 오돌토돌한 점자 표현과 오밀조밀한 촉각 표현, 뚜렷한 소리 표현이 돋보이는 특수도서 <국악기> 책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삼화페인트는 매년 4월 창립기념일(4월 8일)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도서 제작지원 행사를 열고 있다.

이는 삼화페인트와 하트-하트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시각장애아동 교육 인프라 지원사업 '인비저블 투 비저블(Invisible to Visible)'과 연계하여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인비저블 투 비저블은 시각장애아동이 교육을 통해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크게 특수도서 제작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지원으

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문화유산 알리기'라는 큰 주제 아래, 지난 2017년에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2018년에는 '백제세계문화유산'을 점자팝업북으로 만들었으며, 올해 4월 18일에도 경기도 안양의 삼화페인트 연수원에서 오진수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등 임직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점자·촉각·청각 도서 <국악기>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더욱 알찬 구성과 퀄리티를 추구해 모두의 기대를 모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올해 행사는 오진수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통해 시작됐다. 오진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색채·도료전문기업인 삼화페인트의 사회적 역할과 진정성 있는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화페인트는 색과 문자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아동도 다른 방법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년 특수도서 만들기 행사를 열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점자와 촉각, 청각 기능이 한 권에 집약된 보다 퀄리티 높은 도서를 만들게 되어 더욱 뜻깊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삼화인 모두의 진심을 담은 진정성 있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여 시각장애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어 본 행사의 막이 올랐다. 1부의 첫 순서로는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 새롭게 마련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하트-하트재단의 박성진 강사가 연사로 나서 '장애란 무엇인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떠한지',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뒤에는 김다빈 발달장애인 강사의 첼로 연주가 이어졌다. 영화 '라라랜드'의 OST 'City of Stars'와 드라마 '하얀거탑'의 OST 'Rossette'를 연이어 연주하며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선물했다.

아이들의 더 큰 꿈과 행복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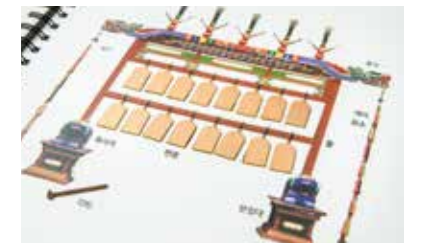
2부에서는 이번 행사의 핵심인 <국악기> 책자 만들기가 본격 진행됐다.

<국악기> 책자는 대금, 태평소, 거문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악기 10여 종을 소개하는 책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아동을 위해 정확한 점자 표현에 힘을 기울였으며, 나무와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악기의 핵심 부분을 촉각화하여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재미를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악기를 더욱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이날 삼화인들은 시각장애아동들의 꿈과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국악기> 책자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나갔다. 섬세한 손끝으로 태평소를 만들어 나가던 김향란 컬러디자인센터 상무는 “이번 <국악기> 책자의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시각장애아동의 상상력과 지식, 소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올해 초 입사한 신입사원들 또한 삼화인다운 열정과 협동심을 발휘해 제작에 집중했다. 박근우 기반기술연구그룹 사원은 “점자·촉각·음성 도서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래서 한 페이지, 페이지를 완성해갈 때의 성취감 또한 매우 큰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국악기> 책자를 시각장애아동들이 보고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배워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도서는 고가의 제작비 문제로 종류가 한정돼 있고 보급도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악기> 책자는 그동안 특수도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국악기를 깊이 있게 소개한 것은 물론, 단순한 점자 도서에서 진화된 형태인 점자·촉각·청각 도서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고 할 수 있다. 삼화인 모두가 완성한 <국악기> 책자는 전국 시각장애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전달돼 시각장애아동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노후주택에 수용성 차열도로 지원

1

삼화페인트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인 신월동 주민을 위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차열페인트를 지원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변 주민지원 사업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에도 6월 3일부터 3일간 이 지역 노후주택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했다.

신월동 주민지원에 쓰인 차열페인트는 신제품 스피쿨 아쿠아 방수 페인트로 환경 친화형 수용성 페인트다. 열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안료를 함유, 벽과 옥상 등에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여름철 태양열을 받아 최대 50~60도까지 올라가는 외벽 온도를 40도까지 낮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CRR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차열페인트 도장 자원봉사에 참여한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옥상과 외벽 등 건물 바깥에 차열페인트를 바르면 태양열 흡수를 차단해 실내 온도를 낮춰줌으로 냉방비용

도 20% 가량 절감시켜준다”며 “한여름에도 창문 열기가 쉽지 않아 더욱 힘들었을 공항 인근 주민들도 차열페인트를 시공함으로써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점차 심해지는 한반도 무더위와 함께 차열페인트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삼화페인트는 지난해에도 산복도로에 위치한 부산 호천마을 에너지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차열페인트 3,400리터를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제품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RRC : 'Cool Roof Rating Council'의 약자로 에너지 절감형 도료를 인증하는 기관.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적용된 자재의 태양광 반사 및 방사 성능을 시험, 평가한다.



모기 기피 기능성 페인트 '인플러스 모스키퍼' 개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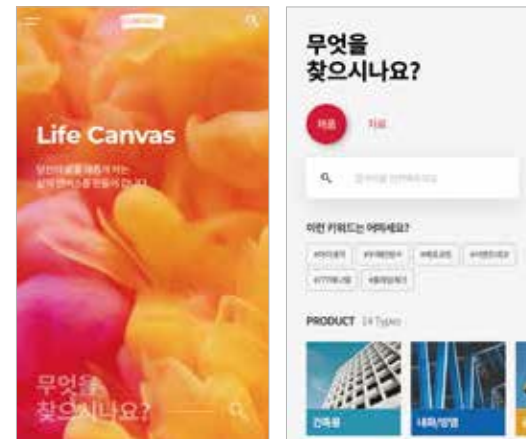
삼화페인트는 모기 기피 기능성 페인트 '인플러스 모스키퍼' 외 1종을 새롭게 개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Zika 바이러스, Dengue 등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큰 가운데 삼화페인트는 모기 기피 효과가 입증된 기능성 도로 '인플러스 모스키퍼'를 개발했다. '인플러스 모스키퍼'는 건축용 수성 도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조색이 가능해, 일반 건물 복도, 현관, 베란다 등 장소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국화과 어려해살이풀인 제충국(除蟲菊)의 천연 모기 기피 성분을 인공합성한 원료를 사용하여 모기 차단 효과는 높으면서 인체에 주는 영향은 최소화했다.

또한 방부, 뒤틀림 방지 효과가 뛰어난 목재 스테인의 베스트셀러 '월드스테인마스터'에도 모기 기피 기능을 추가해 목재 보호뿐 아니라 모기까지 차단하도록 했다. 리뉴얼된 '월드스테인 마스터'는 오는 7월, '인플러스 모스키퍼'는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3



삼화페인트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새로운 모바일 홈페이지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소통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트렌디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삼화페인트의 전 제품을, 새로운 소식과 컬러트렌드, 대리점 찾기 등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제품 정보를 한눈에 보고 공유할 수 있으며 모든 페이지에서 제품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제품 설명 및 시공영상, 카탈로그, 기술자료와 도장사양서, MSDS, 각종인증서 등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카카오톡이나 SMS문자로 공유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은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겠다는 삼화페인트의 'Life Canvas'가 그대로 녹아든 것으로 고객과의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2019년 삼화페인트 수도권본부 워크숍 개최 수도권 본부, 하나로 모여 열정을 확인한 날

6월 21일 금요일. 한주를 바쁘게 보낸 수도권 본부 산하의 각 영업소 직원들이 경기도 장흥의 한 숲으로 모여들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도 하고 매출 목표 달성 의지도 한 번 더 불태워보자 약속한 날이었다. 자리에는 유통사업본부장님과 사장님까지 함께하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고 시름을 어루만져주기도 했다.

워크숍이 열린 장흥은 도시로부터 벗어나, 맑고 싱그러운 숲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저녁이 되어 각자 방을 배정받고 자리에 모인 직원들은 푸짐한 바비큐 파티와 함께 영업소별 파이팅 퍼포먼스를 벌였다.

파이팅 퍼포먼스는 이날의 하이라이트. 구호와 사진을 비롯해 사전에 준비해온 퍼포먼스를 뽐내는 각 영업소 직원들은 마치 영화 속 전사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모두가 열정 가득한 무대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인천영업소는 모두가 인정하는 이날 최고의 무대를 선보여 사장님의 깜짝 선물을 받기도 했다. 영업소 직원들의 '열기'를 제대로 보여준 파이팅 퍼포먼스 시간이 끝나고, 숙소 앞 테라스에서는 술 한 잔과 선후배 간의 터놓는 이야기들이 꽤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전날의 열기와 즐거움을 기억하며 일어난 화창한 이튿날. 푸르른 녹음 속 아담한 수목원에서 모두는 산책을 했다. 각자 지역에서 영업에 최선을 다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과 함께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를 마음에 새겼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동료들은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도권 본부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은 서로 격려를 주고 받고, 한편으로는 각자의 열정을 포효하는 소중한 단합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아마도 지금의 목표를 달성한 결과를 자랑하며, 또 다음의 목표와 열정을 보여주는 날이 될 것이다. '발전의 장'으로 수도권 본부 워크숍이 계속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수도권 본부 파이팅! 모든 삼화페인트 가족 여러분도 파이팅!
늘 그래왔듯이 2019년도 멋진 모습으로 성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건축용팀



서울영업소



수원영업소



원주영업소



인천영업소



북서울영업소

New Samhwa & People

삼화페인트는 2019년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Young!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Samhwa & People>도 인테리어, 트렌드 매거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이 만족하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화페인트 공식 블로그, 개인 SNS 등을 통해 <Samhwa & People>에 대한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장 한 장 일일이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Samhwa & People>이 읽을거리,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소문내주신 모든 분의 의견을 다 실을 수 없어 아쉽지만 주신 의견 중에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신청했을 때의 생각은 그냥 휘리릭 넘기면서 보는 사진 위주의 매거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고 읽어 보니 정말 편집자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버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주제 선택도 좋았고, 구성 또한 상당히 논리적이었다. Samhwa & People 매거진과 삼화칠무 영상, 이 두 개만으로도 삼화페인트에 대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바뀐 거 같다.

오XX

삼화인들을 대상으로 사내소식지로 시작했다고 해요~! 2019년 버전은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 너무 예쁩니다! 솔직히 이렇게 색감도 예쁠 것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은XXX

봄에 인테리어 바꿀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Samhwa & People을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남자XX

트렌드 소개부터, 아티스트와의 인터뷰, 호텔 소개, 홈 스타일링 인테리어, 삼화페인트의 인테리어 컬러 제안, 도어 페인팅 Q&A, 삼화페인트 신제품 소개, Samhwa & People 독자를 위한 초대 이벤트 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실려 있었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특이나 유용한 매거진인 것 같아요!

달콤XXX

Samhwa & People은 읽을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그야말로 트렌드 매거진입니다. 특히나 페인트 매거진답게 색감이 매우 뛰어나 보기만해도 힐링이 되어 좋았답니다.

알쓸XX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눈이 번쩍~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Home! 때론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컬러를 입히고 때론 깊고 진한 여운을 남기는 질은 컬러를 입혀 늘 새로운 감정과 생활을 안겨주는 Samhwa & People인 것 같습니다.

최 XX

Samhwa & People 매거진 표지 컬러부터 고심의 흔적이 보이네요. 페인팅 대중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후X

집에 대한 로망이 있고 인테리어도 관심이 많은데 Samhwa & People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신 트렌드 기사가 가장 좋았답니다. 심지어 이런 매거진을 무료로 보내주시는 이벤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Alxxxx



Samhwa & People 정기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Event

독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리서치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아래 설문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Samhwa & People>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1. 2019년 새로워진 봄호 재밌으셨나요?

- ① 아주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2. 디자인과 종이와 판형(책 사이즈)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떠셨나요?

- ① 아주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3. 가장 관심있게 읽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① 회사 소식(뉴스, 신제품 등)
- ② 구성원들과 대리점 소식
- ③ 생활 및 문화 정보(트렌드 칼럼, 영화 소개 등)
- ④ 인테리어 정보

4. 좀 더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① 회사 소식(뉴스, 신제품 등)
- ② 구성원들과 대리점 소식
- ③ 생활 및 문화 정보(트렌드 칼럼, 영화 소개 등)
- ④ 인테리어 정보
- ⑤ 기타()

5. 2019년 새로워진 Samhwa & People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보내주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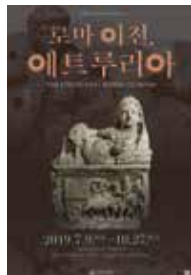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꼭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응모해주세요. 응모는 8월 11일까지, 당첨자는 개별 통보 드립니다.
응모 메일 : speople@samhwa.com



<Samhwa & People> 독자를 위한 전시 초대 이벤트

주위를 둘러보면 일상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가득하다. 사랑하는 이들과 전시, 공연의 즐거움을 나누어보자.

Exhibition



에트루리아, 그리스와 로마의 연결고리

287점의 에트루리아 보물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국립고고학박물관과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에서 대여한 287점의 에트루리아 보물들을 국내 처음으로 소개한다.

기 간 2019년 7월 9일 ~ 2019년 10월 27일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초대 인원 총 5분(1인 2매)



오즈의 미술관

원작 동화를 재해석하여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여 명의 전 세계 미디어 및 설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꿈이 펼쳐진 마법의 세계를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30여 점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행, 휴식, 게임, 취미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점도 관전 포인트.

기 간 2019년 5월 31일 ~ 2019년 11월 10일

장 소 K현대미술관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초대 인원 총 5분(1인 2매)



우리 강산을 그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화가의 시점에 따라 실제 경치가 화면에 그려지는 방식들을 살펴보고, 주관적 시선(해석)에 의해 해체, 재구성되는 양상을 조명했다. 정선, 김홍도를 비롯한 17세기부터 19세기에 활동한 화가들의 다양한 실경산수화를 선보인다.

기 간 2019년 7월 23일 ~ 2019년 9월 22일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

초대일 전시 기간과 동일 초대 인원 총 5분(1인 2매)

추첨을 통해 각 전시의 티켓을 선물합니다. 보고 싶은 공연명을 적어 응모해주세요. 응모는 8월 11일까지, 당첨자는 개별 통보 드립니다.

응모 메일 :

speople@samhwa.com

Samhwa & People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Not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publisher.